

국힘, 대폭 삭감 R&D 예산 보완...40개 사업 증액 추진

인구구조 변화·양극화·경기 둔화·범죄·기후 위기 극복에 중점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확대·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감면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 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전원의 아침밥'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무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

한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에는 체류비도 지원한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선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도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청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국민의힘은 '문지마 범죄' 등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 형사 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을 도입하고, 마약 밀수 검사 장비와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 증차 예산도 증액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학기술·환경노동 수석 신설 검토

'2실 6수석'서 '2실 8수석' 확대

대통령실이 내부 조직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과 환경노동수석비서관 신설이 핵심으로,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분리해 별도의 과학기술수석실을 두는 방향으로 최근 내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 입국' 가치를 내걸고 기초과학 및 기술혁신 투자 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참모진 설명이다.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R&D) 예산안 대폭 삭

감에 강력히 반발하자 국민의힘이 이날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과도 연결 짓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공개 건의했으나, 최종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수석실도 개편 내지 기능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수석실이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방대한 영역의 5개 비서관실을 아우르면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대통령실 내에서도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환경·노동 업무만을 떼어내 환경노

동수석을 두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각각 고용복지수석, 일자리수석을 둔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을 대폭 축소한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취학' 정책 혼신 이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조율 역할을 맡겼다.

이번에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이 신설되면 '2실 6수석' 체제가 '2실 7수석' 내지 '8수석'까지로 확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감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30일 본회의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감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4.7%...3주만에 상승세 꺾여

리얼미터 조사...2.1%p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34.7%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2%로, 2.0%p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10월 3주 32.5% → 10월 4주 35.7% → 11월 1주 36.8% 등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11월 2주 조사에서 34.7%로 3주 만에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9%p ↓)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인천·경기(3.1%p ↓), 대구·경북(2.2%p ↓), 서울(1.6%p ↓) 순이었다. 대전·세종·충청(1.9%p ↑)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9.4%p ↓) 하락 폭이 두드러졌으며, 20대(3.3%p ↓), 50대(2.0%p ↓)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60대(1.2%p ↑)에서는 소폭 올랐다.

이번 성향별로는 보수층(2.5%p ↓, 65.2% → 62.7%)에서 하락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